

서울대 신입생 영어실력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기초교육원의 의견

< 서울대 신입생 영어실력 5년새 크게 저하... “수능 절대평가 원인”> (동아일보 2023.

11. 17.자 기사>

<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20/0003531878?sid=102>

위 기사는 두 가지 잘못된 팩트를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.

1. 고급영어 수강생 감소를 근거로 영어실력 저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, 고급영어 수강대상자는 해마다 변동이 있으며 2023학년도의 경우 전년도 대비 22% 증가하였습니다. 또한 서울대학교는 단과대학별로 교양영어 교과목 이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, 인문대학, 수의과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(구)텡스 901점 이상의 경우 교양영어 교과목 이수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. 이 학생들은 <고급영어> 수강 인원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○ 교양영어 학년도별 수강인원

교과목\학년도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
기초영어	574	639	786	787	581	395
대학영어 1	1,646	1,636	1,934	2,344	2,203	2,116
대학영어 2	1,077	1,012	1,037	1,034	881	994
고급영어	926	864	773	714	645	790
합계	4,223	4,151	4,530	4,879	4,310	4,295

2. <대학영어 1>은 텡스 기준으로 중상급, 3+이며, 최근에 서울대학교는 <대학영어 1>을 듣는 학생 기준을 (구)텡스 500에서 550으로 상향하였습니다. 3+는 "외국인으로서 중급 수준의 의사소통능력 (Mid Intermediate Level of Communicative Competence): 중장기간 집중 교육을 받으면 한정된 분야의 업무를 큰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음"의 정도를 뜻하며, 서울대학교 신입생으로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학생에게 학교가 기대하는 수준입니다.